

“한·아세안 평화·번영의 열쇠는 문화”

문화전당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폐막 영화협력 기구 설립 등 5개 분야 협력 합의

한·아세안 장관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 교류와 창작의 중심 플랫폼으로 주목한 가운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3·24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가 24일 공동언론 성명 발표를 끝으로 이틀 간 일정의 막을 내렸다.

한·아세안 장관들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문화산업 교류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다양한 콘텐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래 세대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자”고 합의했다. 또한 아세안 장관들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전 대화의 장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문화협력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

기를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자원과 기술이 만나 함께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산업 콘텐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를 통해 ‘아시안 전통오케스트라’와 같이 한국과 아세안의 예술가 간 공동창작이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세안 국가의 콘텐츠 시장은 2014년 이래 연간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향후 2021년까지 약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아세안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는 아세

안 지역에서의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 인사말에서 “한국과 아세안 지역 평화, 번영의 열쇠는 문화이다”며 “문화를 통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좋은 이웃이다”며 “지난 2017년 제1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발표한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5개 분야 구체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뤄가기로 했다. 5개 분야는 ‘상호문화이해 증진’, ‘공동 창작 활성화’, ‘문화산업 협력’, ‘문화유산 보존 활용 협력’, ‘문화예술기관 협력 강화’이다. 특히 주목되는 협력사업으로는 ▲영화 협

력 촉진을 위한 기구 설립 ▲세계 유산 등 재 협력·약탈 문화재 환수 공동 대응 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아세안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이다.

아울러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 강화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전시 및 운영·연구·출판·정보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의 유산과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개최하며 2009년부터 한국에서 개최해온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을 아세안 각국 순회공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통 음악인 교류 레지던시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전통음악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성·막말·몸싸움...광주 서구의회 추태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도중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추태를 보였다.

24일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79회 임시회에서 김옥수(민주평화당) 의원은 ‘인사발령, 5·18 40주년 기념행사 추경 편성, 의회 전문위원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법한 행정에 대한 지적을 공격하고 무작정 같은 당 집행부를 편들어주는 것은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적폐다”며 “일부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이 공무원들 사이에 웃음거리가 돼 의회 경사·별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내는 술렁였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삿대질과 고성 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김 의원이 발언한 조레안 심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오희교(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승일 의원 등이 설전에 앞장섰고 급기야 김 의원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했다. 이후 정회로 선포됐지만 갈등은 더 심화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몸싸움도 벌어졌다. 회의 종료 이후에도 김 의원에게 ‘G20을 지투으로 읽는 의원’으로 거론된 김 의원은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흥분했다.

한편 강기석 의장의 발언도 입방아에 올랐다. 강 의장은 자신이 단독 발언했다가 철회했던 전·현직 의원모임 지원 조례의 순기능을 재차 강조하며 의회 안팎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사의...“내년 총선 출마”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과정에서 ‘산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사가 24일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부시장은 24일 “오는 30일 임임을 하고 물러난다. “정치는 풍찬노숙의 길이다. 더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며, 공직가치를 창출하려는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애초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기공식,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문제가 정리되는 11월에 물러나려고 했는데, 기공식이 연말로 늦춰지고 새로 올 사람이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해 한 달 먼저 나가기로 했다”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재임 기간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친환경 경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꼽으면서 “이들 사업은 광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형일자리 광주시·현대차·투자협약이 지난해 12월 무산됐을 때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도 동료 공무원과 이용섭 시장의 지원, 노동계의 협조에 힘입어 투자 협약을 거쳐 법인 설립에 필요한 2300억원의 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 부시장은 “항상 ‘뭇이 중한지?’라는 생각과 ‘인생은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왔다”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늘 선후경중을 따지며 사소한 데 매이지 않으려 했다. 세상 어떤 자리도 천년만년 머물 수 없다.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있을 때 집집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50만송이 꽃물결 '화순 국화향연' 24일 오전 전남 화순군 남산공원 일원에 향형색색의 국화가 꽃망울을 터트려 꽃물결을 만들고 있다. '김삿갓도 반한 국화동산'에서 주제로 다음달 10일까지 '2019 화순 국화향연'이 열리는 남산공원은 국화를 비롯한 핑크몰리, 코키아, 역새 등 50여만 송이의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사태를 선보인다.

바이어와 축산기업간 만남의 장 농업박람회

바이어vs기업(B2B) 상담회
농식품업체 등 62개사 참여

2019국제농업박람회에서 전남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내수 강화를 위해 국내 유통업체 바이어와 기업 간 1대1 매칭을 통한 판로 개척의 장이 열렸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4일 박람회장에서 국내 우수 농식품 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유통업체 바이어(MD) 초청, 바이어vs기업(B2B) 상담회를 진행했다.

바이어가 참석하는 기업 상담회는 울타리 두 번째다. 지난 5월 상담회에서는 국내 14개 바이어, 26개 기업이 참여해 총

83건의 상담건수와 5건의 온라인매매접입점 성과를 거뒀다.

이번 2차 상담회에서는 (주)GS홈쇼핑, Y마트, 우체국쇼핑 등 파급력 있는 국내 유통 바이어 20개사와 역량 있는 농식품업체 42개사가 참여했다.

바이어와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상담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상담 성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김성일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

사는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원천은 바로 내수시장 강화에 있다”며 “역량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로 개척에 국제농업박람회가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오는 27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는 판촉수익 1733억원을 목표로 국내외 우수 농업경영체와 국내외 바이어들을 연결하는 가고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 친환경 부표 교체 112억 확보

전남도가 2020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비 가운데 112억원을 받아 해양 미세플라스틱 제거에 나선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1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김양식장을 비롯한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할 예정이다. 스티로폼 부표의 전국 생산량(56만7993t) 가운데 전남도가 81%(45만9345t)를 차지할

정도로 스티로폼 부표가 대중화돼 있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김 양식장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없었던 신규 사업 예정지를 포함하고, 신규 어장에서 폐스티로폼 회수 의무가 제외되는 등 사업 자격 및 요건 완화도 크게 개선된다.

특히 친환경 부표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해양쓰레기 중 37%를 차지하는 폐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기대된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871280

462810973

576214302

631749802

87781400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